

부산지역 청년층 인재유출입 분석*

류장수 · 박성익 · 조장식**

I. 머리말

우리나라는 수도권으로의 인구 및 경제력 집중이 심각한 수준이다. 1985년만 해도 수도권 인구의 비중은 39.0%였으나 2011년에는 49.3%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수도권에 차지하는 지역내 총생산의 비중도 1985년 46.1%에서 2011년 49.0%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구와 경제력이 집중됨에 따라 수도권에 차지하는 취업자 비중이 1989년 42.1%에서 2011년 50.3%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상응하여 부산 및 동남권 취업자의 비중이 동기간 중에 각각 8.4%와 17.2%에서 6.5%와 15.3%로 감소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부산 및 동남권을 포함한 전국의 우수한 인재가 좋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지역의 인재가 어디로 얼마만큼 유출되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부산지역을 대상으로 부산지역 고교 졸업자와 대학 졸업자가 어느 지역으로 얼마나 유출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타지역에서 청년층이 얼마나 부산으로 유입되었는지도 같이 분석한다. 아울러 부산지역에 체류하는 사람의 특성과 유출되는 사람의 특성을 비교함으로써 우수한 졸업자가 체류하는지 아니면 유출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서 사용한 자료는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 GOMS)’와 ‘고졸자 취업진로조사(High School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 HSGOMS)’이다.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는 전문대학 이상의 졸업자를 모집단으로 하여 매년 1만 8천 명의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하고 2년 뒤 추적조사를 한 자료이다. 그리고 고졸

* 본고는 한국노동연구원의 「부산지역 청년층 이동실태와 특성」 및 「부산지역 특성화 고교 졸업자의 취업실태와 특성」의 해당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한 것이다.

** 류장수=부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jsryu@pknu.ac.kr), 박성익=경성대학교 국제무역통상학과 교수(sipark@ks.ac.kr), 조장식=경성대학교 정보통계학과 교수(jscho@ks.ac.kr).

자 취업진로조사는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에서 누락되어 있는 고졸 청년층을 모집단으로 하여 약 6,000명의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한 것이다. 두 조사 모두 교육과정, 구직활동, 일자리 경험, 직업훈련 및 가계배경 등 노동시장 진입 및 정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설문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필요로 하는 고교 소재지, 대학 소재지 및 직장 소재지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인력의 지역 간 유출입 분석에 적합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부산지역 청년층 유출입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제Ⅱ장과 제Ⅲ장에서는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를 활용해 각각 부산의 1차 유출입(고교→대학)과 2차 유출입(대학→취업)의 현황 및 유출입자의 특성을 비교·분석하고, 아울러 부산의 1차 및 2차 유출입 수치를 구하여 그 결과를 제시할 것이다. 제Ⅳ장에서는 고졸자 취업진로조사를 활용해 부산의 특성화고 졸업자의 유출입 현황과 특성을 비교·분석하고, 마지막 제Ⅴ장에서는 정책적 함의에 대하여 서술하도록 한다.

Ⅱ. 1차 유출입(고교 → 대학) 현황 분석

<표 1>의 1차 인력유출입 현황을 나타낸 결과를 보면, 부산에서 수도권으로 많은 학생이 유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산지역 고교 졸업자 36,951명 중 부산지역의 대학으로 진학하는 학생은 26,196명(70.9%)이고, 수도권의 대학으로 진학하는 학생은 4,219명(11.4%)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도권 고교 졸업자 192,613명 중 552명(0.3%)만이 부산지역의 대학으로 진학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으로만 3,667명이 순수출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부산에서는 3,771명(10.2%)이 기타 지역의 대학에 진학하는 반면, 기타 지역에서는 1,942명(1.0%)만이 부산지역의 대학으로 진학한 것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기타 지역으로도 1,829명이 순수출된 것을 알 수 있다.

동남권 내에서는 부산지역의 대학으로 진학하는 학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부산지역 고교 졸업자 중 부산의 대학으로 진학하는 학생은 26,196명(70.9%), 울산과 경남은 각각 670명(1.8%)과 2,095명(5.7%)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울산지역 고교 졸업자 중 울산의 대학으로 진학하는 학생은 4,624명(39.9%), 부산과 경남은 각각 1,690명(14.6%)과 669명(5.8%)으로 나타났다. 경남지역 고교 졸업자 중 경남의 대학으로 진학하는 학생은 15,862명(47.3%), 부산과 울산은 각각 6,810명(20.3%)과 257명(0.8%)으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울산 및 경남지역 고교 졸업자 중 부산지역의 대학으로 진학하는 학생은 총 8,500명인데, 부산에서 울산 및 경남의 대학으로 진학하는 학생은 2,765명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동남권 내에서는 부산의 대학으로 5,735명이 순수입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1차 인력(고교 → 전문대 및 4년제 대학) 유출입 현황

(단위: 명, %)

			대학교 소재지					전 체
			부산	울산	경남	수도권	기타	
고교 소재지	부산	빈도	26,196	670	2,095	4,219	3,771	36,951
		비율	70.9	1.8	5.7	11.4	10.2	100.0
	울산	빈도	1,690	4,624	669	1,524	3,086	11,593
		비율	14.6	39.9	5.8	13.1	26.6	100.0
	경남	빈도	6,810	257	15,862	4,102	6,514	33,545
		비율	20.3	0.8	47.3	12.2	19.4	100.0
	수도권	빈도	552	36	250	147,377	44,398	192,613
		비율	0.3	0.0	0.1	76.5	23.1	100.0
	기타	빈도	1,942	585	1,480	27,190	163,617	194,814
		비율	1.0	0.3	0.8	14.0	84.0	100.0
	전 체	빈도	37,190	6,172	20,356	184,412	221,386	469,516
		비율	7.9	1.3	4.3	39.3	47.2	100.0

〈표 2〉는 부산지역 고교 졸업자의 대학 진학 지역별 특성을 분석한 것이다. 부산지역의 대학에 진학한 학생의 성별 분포는 남자가 46.8%, 여자가 53.2%인 반면, 수도권 지역 진학자는 남성이 58.8%, 여성이 41.2%로 다소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로부터 남성의 수도권 지역으로의 진학률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부산지역 대학 진학자 중 4년제 대학의 비중은 68.1%인데 비해 수도권 지역 대학 진학자 중 4년제 대학의 비중은 88.6%로 나타나 수도권 지역 진학자가 상대적으로 4년제 대학에 더 많이 진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산지역 대학으로 진학한 학생 중 부의 학력 비율은 고졸 이사가 73.5%인 반면, 전문대졸은 6.2%로 나타났으며, 대졸 이상은 20.2%로 나타났다. 수도권 지역으로 진학한 학생 중 부의 학력 비율은 고졸 이사가 49.8%, 전문대졸이 11.2%로 나타났고, 대졸 이상은 38.9%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부산지역 대학 진학자의 부의 학력이 수도권 지역 대학 진학자의 부의 학력보다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고등학교 계열별로 살펴보면, 부산지역의 대학 진학자는 일반계고가 70.8%인 반면, 수도권 지역 진학자는 77.7%로 나타났으며, 외고·과학고에서는 부산지역 대학 진학자가 1.9%이고 수도권 지역 진학자는 11.1%로 나타났다. 이것으로부터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수도권 대학에 더 진학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국·사립 유형으로 살펴보면, 부산지역 대학 진학자 중 26.8%가 국립대학에 진학한 반면, 수도권은 17.6%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수도권보다 부산에 상대적으로 국립이 더 많은데다가 수도권 국립대학의 경쟁률이 더 세서 상대적으로 진학이 어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 결과 부산지역 고교 졸업자로서 수도권으

로 진학한 학생은 학비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사립대학에 진학함으로써 더 많은 학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표 2〉 부산지역 고교 졸업자의 대학 진학 지역별 특성

(단위: 명, %)

		부산	울산	경남	수도권	기타지역	전 체
특성별 전체		26,196	670	2,095	4,218	3,771	36,950
성	남성	46.8	39.9	44.3	58.8	41.1	47.3
	여성	53.2	60.1	55.7	41.2	58.9	52.7
학력	전문대졸	31.9	64.3	32.2	11.4	46.8	31.7
	대졸	68.1	35.7	67.8	88.6	53.2	68.3
부의 학력	고졸 이하	73.5	49.0	83.5	49.8	74.0	71.0
	전문대졸 이하	6.2	13.7	5.3	11.2	8.3	7.1
	대졸 이하	16.7	34.2	6.7	25.0	13.7	17.1
	대학원 이상	3.5	3.1	4.4	13.9	4.0	4.8
고등학교 계열	일반계고	70.8	74.5	64.0	77.7	60.1	70.2
	외고·과학고	1.9	0.0	0.0	11.1	3.6	3.0
	농·상·공고	23.3	25.5	33.3	5.1	32.1	22.7
	기타	4.0	0.0	2.7	6.1	4.3	4.1
국·사립	국립	26.8	0.0	10.6	17.6	15.3	23.2
	사립	73.2	100.0	89.4	82.4	84.7	76.8

Ⅲ. 2차 유출입(대학→취업) 현황 분석

〈표 3〉의 2차 인력유출입 현황을 나타낸 결과를 보면, 부산에서 수도권으로 많은 졸업자가 유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산지역 대학 졸업자 28,360명 중 부산에 취업하는 사람은 16,397명(57.8%)이고, 수도권으로 취업하는 사람은 4,575명(16.1%)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 졸업자 146,956명 중에서는 674명(0.5%)만이 부산으로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나 3,901명이 순유출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부산에서는 2,054명(7.2%)이 기타 지역에 취업하는 반면, 기타 지역에서는 부산으로 2,203명이 취업한 것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149명이 순유입된 것을 알 수 있다.

동남권 내에서는 부산과 경남으로 취업하는 사람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부산

〈표 3〉 2차 인력(전문대 및 4년제 대학 → 취업) 유출입 현황

(단위: 명, %)

			현 직장 소재지					전 체
			부산	울산	경남	수도권	기타	
대학 소재지	부산	빈도	16,397	1,007	4,327	4,575	2,054	28,360
		비율	57.8	3.6	15.3	16.1	7.2	100.0
	울산	빈도	246	3,597	196	766	380	5,185
		비율	4.7	69.4	3.8	14.8	7.3	100.0
	경남	빈도	1,838	532	10,714	2,136	1,081	16,301
		비율	11.3	3.3	65.7	13.1	6.6	100.0
	수도권	빈도	674	305	745	137,972	7,260	146,956
		비율	0.5	0.2	0.5	93.9	4.9	100.0
	기타	빈도	2,203	2,318	3,248	61,205	110,272	179,246
		비율	1.2	1.3	1.8	34.1	61.5	100.0
	전 체	빈도	21,358	7,759	19,230	206,654	121,047	376,048
		비율	5.7	2.1	5.1	55.0	32.2	100.0

지역 대학 졸업자 중 부산으로 취업하는 사람은 16,397명(57.8%), 울산과 경남은 각각 1,007명(3.6%)과 4,327명(15.3%)으로 나타났다. 울산지역 대학 졸업자 중 울산으로 취업하는 사람은 3,597명(69.4%), 부산과 경남은 각각 246명(4.7%)과 196명(3.8%)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남지역 대학 졸업자 중 경남으로 취업하는 사람은 10,714명(65.7%), 부산과 울산은 각각 1,838명(11.3%)과 532명(3.3%)으로 나타났다. 울산 및 경남지역 대학 졸업자 중 부산으로 취업하는 사람은 총 2,084명인데, 부산에서 울산 및 경남으로 취업하는 사람은 5,334명으로 나타나 동남권 내에서는 부산에서 울산 및 경남으로 3,250명이 순유출된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1차 유출의 경우 동남권 내에서 부산으로 5,735명이 순유입되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로부터 동남권 내에서는 부산의 대학으로 진학을 하고 졸업 후에는 울산 및 경남으로 취업을 하는 흐름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는 부산지역 대학 졸업자의 취업 지역별 특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부산지역 대학 졸업자 중 부산지역으로 취업하는 사람이 16,398명(57.8%)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수도권 4,574명(16.1%), 경남 4,327명(15.3%), 기타 지역 2,054명(7.2%), 울산 1,008명(3.6%)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산지역 대학 졸업자로 부산에 취업한 사람의 성별 분포는 남성이 41.7%, 여성이 58.3%인 반면, 수도권 지역 취업자는 남성이 52.7%, 여성이 47.3%로 다소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로부터 남성의 수도권 지역으로의 취업률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고교 졸업자 중에서 남성의 수도권 대학 진학자 비중이 여성보다 더 컸다는 점을 고려하면, 남성이 수도권의 대학으로 더 많이 진학하고, 수도권의 직장으로 더 많이

취업한 것을 알 수 있다.

학력별 분류를 살펴보면, 부산지역에 취업한 사람 중 61.5%가 4년제 대학 졸업자인데 비해 수도권에 취업한 사람은 88.9%가 4년제 대학 졸업자로 나타나, 4년제 대학 졸업자가 수도권으로 더 많이 취업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사립 분류를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는 부산의 국립대학 졸업생이 사립대학 졸업생보다 수도권에 더 많이 취업한 것을 알 수 있다. 부산지역 취업자 중에서 국립의 비중은 18.0%에 불과하지만, 수도권 취업자 중에서 국립의 비중은 39.9%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산에 취업한 사람의 기업규모를 살펴보면, 수도권에 취업한 사람의 기업규모보다 전반적으로 더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500인 이상 기업규모의 비중만 보더라도 부산지역 취업자의 비중은 27.0%인데 비해 수도권 취업자의 비중은 46.5%에 달하기 때문이다. 또한 부산지역 취업자의 월급은 300만 원 이상자의 비중이 7.5%인데 비해 수도권 취업자의 비중은 18.3%로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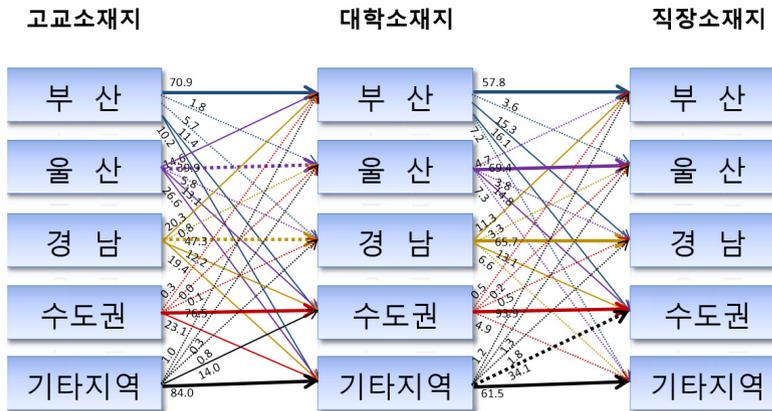
〈표 4〉 부산지역 대학 졸업자의 취업 지역별 특성

(단위: 명, %)

		부산	울산	경남	수도권	기타지역	전 체
특성별 전체		16,398	1,008	4,327	4,574	2,054	28,361
성	남성	41.7	42.1	55.2	52.7	68.2	47.5
	여성	58.3	57.9	44.8	47.3	31.8	52.5
학력	전문대졸	38.5	42.5	25.7	11.1	26.7	31.4
	대졸	61.5	57.5	74.3	88.9	73.3	68.6
국·사립	국립	18.0	30.4	42.3	39.9	37.7	27.1
	사립	82.0	69.6	57.7	60.1	62.3	72.9
기업규모	1~4인	11.2	8.3	12.6	4.1	8.8	10.0
	5~9인	11.1	4.2	8.3	8.1	1.1	9.2
	10~49인	21.0	13.6	21.5	9.6	9.3	18.1
	50~99인	11.0	11.8	5.5	10.2	8.9	9.9
	100~499인	18.8	17.2	15.6	21.6	11.9	18.2
	500~999인	5.5	15.3	2.9	9.0	5.5	6.0
	1,000인 이상	21.5	29.6	33.6	37.5	54.6	28.6
월평균 급여	없음	0.1	0.0	0.9	0.0	1.1	0.3
	100만 원 미만	9.4	0.0	7.3	5.3	3.6	7.6
	100~200만 원	57.4	59.4	45.1	35.1	34.0	50.3
	200~300만 원	25.6	35.9	32.0	41.4	36.9	30.3
	300~500만 원	5.9	2.1	14.1	13.9	21.1	9.4
	500만 원 이상	1.6	2.6	0.6	4.4	3.3	2.1

[그림 1]은 1차 유출입과 2차 유출입의 현황을 보여주는 고교-대학-직장의 지역별 이동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할 만한 것은 첫째, 울산과 경남지역 고교 졸업자의 경우 각각 14.6%와 20.3%가 부산지역의 대학으로 유입되는데, 부산지역 대학 졸업자의 3.6%와 15.3%가 각각 울산과 경남으로 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나 동남권 내에서는 부산지역의 대학으로 진학하고, 졸업 후 다시 해당 지역으로 회귀한다는 특성이 보인다는 것이다. 둘째는 부산지역의 고교 졸업자 중 11.4%, 대학 졸업자 중 16.1%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데, 수도권에서는 0.3%의 고교 졸업자와 0.5%의 대학 졸업자만이 부산으로 진학 및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으로의 인력유출이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 고교-대학-직장 이동 현황



주: 단위는 비율(%)임.

IV. 특성화고 졸업자의 유출입 분석

졸업한 고교 소재지별로 현 직장 소재지를 분석한 결과, 부산지역 특성화고를 졸업한 학생들 중 현재 부산 소재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중이 1,712명(56.6%)이며, 나머지 1,312명(43.4%)의 졸업자는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었다. 부산지역 특성화고 졸업자의 18.1%가 경남지역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울산으로의 유출률은 1.3%로 매우 낮았다. 부산 지역 특성화고 졸업자 네 명 중 세 명이 동남권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고, 수도권 직장으로 이동한 유출자 비중은 4.9%, 나머지 지역의 직장으로 유출된 비중은 19.1%였다.

〈표 5〉 특성화고 졸업자 유출입 현황

(단위: 명, %)

			현 직장 소재지					전 체
			부산	울산	경남	수도권	기타	
고교 소재지	부산	빈도	1,712	40	546	147	579	3,024
		비율	56.6	1.3	18.1	4.9	19.1	100.0
	울산	빈도	11	483	28	57	191	770
		비율	1.4	62.7	3.6	7.4	24.8	100.0
	경남	빈도	48	5	1,704	65	135	1,957
		비율	2.5	0.3	87.1	3.3	6.9	100.0
	수도권	빈도	0	98	45	17,315	1,597	19,055
		비율	0.0	0.5	0.2	90.9	8.4	100.0
	기타	빈도	61	41	67	1,926	14,123	16,218
		비율	0.4	0.3	0.4	11.9	87.1	100.0
	전 체	빈도	1,832	667	2,390	19,510	16,625	41,024
		비율	4.5	1.6	5.8	47.6	40.5	100.0

동남권 지역 소재 특성화고 졸업자가 현재 동남권 소재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비중은 79.6%로서 약 80%가 동남권 지역에 머물고 20% 정도가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다. 부산과 비교하면 울산과 경남의 특성화고 졸업자의 동일 소재지역 직장에서 근무하는 비중이 각각 62.7%, 87.1%로 보다 높아 부산의 유출률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수도권 지역 특성화고 졸업자의 동일 지역에서 직장을 구한 비중이 90.9%로 다른 지역보다 유출률이 낮았다.

부산지역 특성화고 졸업자 중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부산에서 취업한 졸업자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여성보다는 남성 비중이 높으며, 유출자의 경우 남성은 울산과 경남지역 중심으로 이동한 반면, 여성은 기타 지역(대구경북권+충남권+호남권+제주권+강원권)으로 이동한 비중이 매우 높았다. 그리고 울산과 경남지역으로의 유출자에 비해 부산지역 체류자 부모의 학력이 보다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부산에 취업한 사람의 기업규모를 살펴보면, 서울에 취업한 사람의 기업규모보다 전반적으로 더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300인 이상 기업규모의 비중만 보더라도 부산지역 취업자의 비중은 15.9%인데 비해 수도권 취업자의 비중은 75.5%에 달하기 때문이다. 특히 부산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취업자의 월평균 소득이 유출자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부산지역 체류자 중 월평균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자의 비중이 25.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부산지역 특성화고 졸업자의 취업지역별 인적특성

(단위: 명, %)

		부산	울산	경남	수도권	기타	전 체
지역별 전체		1,712	40	545	147	580	3,024
성	남성	56.5	100.0	83.1	52.4	23.4	55.3
	여성	43.5	0.0	16.9	47.6	76.6	44.7
부의 학력	고졸 이하	73.3	51.3	67.6	75.7	74.1	72.2
	전문대졸	12.2	12.8	23.6	0.0	8.6	13.0
	대졸	14.5	35.9	8.9	24.3	17.3	14.8
	대학원 이상	-	-	-	-	-	-
기업규모	1~4인	21.3	0.0	2.2	7.5	0.0	12.8
	5~9인	16.3	0.0	14.8	0.0	0.5	12.0
	10~49인	24.2	20.0	4.8	12.9	4.0	16.2
	50~99인	6.9	7.5	7.3	4.1	3.3	6.2
	100~299인	15.4	40.0	27.8	0.0	6.0	15.4
	300~999인	13.0	15.0	29.5	27.2	7.6	15.7
	1,000인 이상	2.9	17.5	13.6	48.3	78.6	21.7
월평균 급여	100만 미만	25.2	0.0	4.6	12.9	3.3	16.4
	100~150만 원	54.2	28.2	63.2	32.7	23.0	48.5
	150~200만 원	17.6	41.0	29.3	50.3	43.2	26.5
	200~250만 원	2.6	12.8	2.9	4.1	26.6	7.4
	250~300만 원	0.4	17.9	0.0	0.0	4.0	1.2
	300만 원 이상	-	-	-	-	-	-

V. 맺음말

앞서 언급했듯이, 일자리의 부족이 지역 청년층의 유출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좋은 일자리 확충이 우수 인재의 지역대학 입학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지역발전을 유발함으로써 다시 좋은 일자리가 확충되는 선순환 체계의 정립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의 토대하에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염두에 두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부산지역의 고교 졸업자 중 11.4%, 대학 졸업자 중 16.1%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데, 수도권에서는 0.3%의 고교 졸업자와 0.5%의 대학 졸업자만이 부산으로 진학 및 취업

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으로의 인력유출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우수한 인재가 지역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괜찮은 일자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일자리에 적합한 인재를 교육할 수 있는 우수한 지역 대학이 존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역 대학을 육성하는 획기적인 방안이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부산·울산·경남 간 인재의 유출입이 매우 활발하다는 사실이다. 세 지역 간 인재 흐름의 전체 모습은 울산과 경남지역의 고졸자 중 적지 않은 수가 부산지역의 대학으로 진학하고, 부산지역의 대학 졸업자 중 울산과 경남지역의 직장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우수 인재를 양성·확보·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부산 따로, 울산 따로, 경남 따로’의 방식을 지양하여야 한다. 특히 동남권 내 각 지역이 지니고 있는 비교우위를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동남권의 인재육성 메커니즘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동남권 전체의 발전이 가능해질 것이다.

셋째, 부산의 특성화고 졸업자 중 상위권 학생들이 경남을 중심으로 한 다른 지역으로 상당규모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 지역에 괜찮은 일자리가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성화고 노동시장의 수급대책을 마련할 경우 세 지역(이른바 동남권) 간의 통합 혹은 연계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와는 별도로 부산에서 양성한 인력을 지역에서 활용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하여 지역 자체에서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도 분명한 것이므로 부산에서 양성된 우수한 특성화고 졸업자를 부산의 기업들과 연결시키는 작업도 매우 중요하다. 또한 우수한 특성화고 졸업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부산 내에서 창출해 가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KLI**

<참고문헌>

- 권상철(2006), 『우리나라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 시기별, 유출지역, 특성과 이주자, 선별적 특성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 『한국지리학회지』 11(6).
- 김영철·이민환(2003), 『지역인재의 수도권 대학 진학과 지역 경제력 유출 효과: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연구』 19(2).
- 문남철(2010), 『대학졸업자의 지역간 취업이동과 지역발전』, 『국토지리학회지』 44(4).
- 박우식·박상옥·엄창옥(2011), 『지역인재 유출에 의한 경제력 유출 분석: 대구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산업경제연구』 24(4).
- 류장수·박성익·김종한·조장식·곽소희(2012), 『부산지역 청년층 역외유출 현황과 방지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광역시·부산고용포럼.
- 임정덕·장영재(1997), 『지역우수두뇌의 유출현상과 지역균형발전』, 『노동경제논집』 20(1).

